

---

##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관련 유용 정보

---

### 목 차

1	목적	2
2	초기정착	2
3	어학연수 및 유학정보	6
4	아르헨티나 교육의 특징	14
5	생활여건	16
6	여행정보	18

## 1 목적

- 한국 청년들의 아르헨티나, 남미 진출 및 인적 네트워킹
- 중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스페인어 학습
- 지리적인 이점 활용,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풍부한 자연, 문화 환경을 경험
- 아르헨티나 무상교육 프로그램 활용, 다양한 교육 니즈 충족 : 의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문화, 체육, 국제관계, 경영 및 국제무역 등
- 장래 일자리 확보, 미래 이민 및 정착에 대한 대비  
(라틴아메리카 내에 2번째로 큰 한인동포 커뮤니티 ≍ 25,000명)

## 2 초기 정착

### ▣ 워킹 홀리데이 신청

- 아르헨티나 외교부
  - <https://cancilleria.gob.ar/en/services/foreign/republic-korea>
  - <https://www.cancilleria.gob.ar/en/service/foreigners/visas>
- 비자지원서
  - [https://www.cancilleria.gob.ar/userfiles/servicios/fsv\\_2019\\_ing\\_editable\\_7.pdf](https://www.cancilleria.gob.ar/userfiles/servicios/fsv_2019_ing_editable_7.pdf)
- 한국 내 아르헨티나 대사관
  - <http://ecore.mrecic.gov.ar/en>
- 대한민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 <http://whic.mofa.go.kr/index.do>

## ■ 숙박(Housing)

- 외국인의 경우,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원룸, 셰어하우스, 셰어룸을 렌트 (Alquiler temporario) 하는 것이 가장 일반 적임,  
※ 초기 현지 문화 이해를 위해 홈스테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 보증금: 보통 1~3달치 월세  
※ 페소보다는 미화로 거래해야 추후 인플레이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지역 : 팔레르모, 알마그로, 까바시또, 산 텔모, 미크로 센트로, 비야크레스포 등의 지역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들이 많음. 통학을 고려해 지하철(Subte)역과 가까운 곳으로 채택.
- 주택형식 : 빌라/아파트형 (Departamento)이 일반적이며,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집 (Casa) 또는 PH -Propiedad Horizontal의 약자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특수한 집 형태- 에서 공동공간(주방, 화장실, 정원)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가 있음.
- 2년 이하의 임시임차(Alquiler Temporario)의 경우 대체로 관리비, 전 기세, 수도세, 가스, 인터넷 통신료 포함. 계약 전 내용 확인 필요.
- 비용(1인 기준): 월 10,000페소(300불 내외)부터 30,000페소(800불) 까지 크기별, 지역별, 건물과 가구의 상태에 따라 다양.
- 주요 검색 사이트
  - <https://www.mercadolibre.com/ar>
  - <http://www.pisocompartido.com.ar/> (셰어하우스)
  - <https://www.zonaprop.com.ar/> (원룸)
  - <https://www.airbnb.com.ar/>
  - <https://buenosaires.craigslist.org/>

## ■ 은행 & 환전

○ 주요 은행

- Santander Río, Galicia, BBVA Francés, Banco Nación, Banco Patagonia, Banco Ciudad 등

○ 계좌 종류

- Caja de Ahorro (입출금통장) : 아르헨티나 페소 또는 미화로 가능.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ATM 기를 통해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 사용하는 계좌,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계좌 종류
- Caja Corrientes : 체크 발급가능 계좌로, 해당사항 없음.
- 계좌개설방법

: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 거주지 증명서 또는 가스, 수도세, 전화세 납부 증명서 중 1장은 본인이름 된 서류가 필요함.

※ 국공립은행(Banco Nación, Banco Patagonia, Banco Ciudad 등)을 제외 한 Santander, 의 경우 대학생인 경우나 급여 계좌가 아닌 경우 일반계좌는 매 달 계좌유지비(대략 20\$)가 추가적으로 부과됨.

※ 거주지 증명서(Constancia de domicilio):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근처의 경찰서(Comisaria de Policia)에 찾아가서 무료로 신청가능. 주변 경찰서 검색: <https://www.buenosaires.gob.ar/justiciayseguridad/buscador-de-comisarias>

○ 환전소 (Casa de Cambio)

-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나 보통 환전소나 Cuava 라고 불리는 비공식 환전소(여행사, 직불창구, Western Union 등)에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 은행보다 신속하고 환율도 높은 편.
- 시내 중심가(Florida거리), 관광지(San Telmo)를 중심으로 공식/비공식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고, Florida 거리의 경우, 외국인과 여행자를 대상으로 가끔 위조지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 ※ 아르헨티나는 환율이 불안정하므로, 단기체류의 경우 굳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환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용이함.
- ※ 아르헨티나 ATM 기에서는 미화인출이 불가능하고, 한국 직불카드로 현지화페소를 출금한다고 해도 현지 수수료가 10 ~ 15불 가량 붙으므로 불리한 점이 있음. 한국인들의 경우 한인커뮤니티의 송금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큰 금액이 아닌 경우, 우루과이로 건너가서 미화를 인출하는 방법도 있음.
- ※ 은행계좌가 없는 대신, 최근 Mercadopago 등의 사이트에서 인터넷 가상계좌를 만들고, 각종 지불창구 (Rapipago, Pagofácil 등)을 통해 충전해 직불체크카드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DNI 필요).

#### ○ DNI 가 무엇인가요?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의 약자로 국내신분증이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에 해당하는 카드다. 외국인의 경우, VISA를 받게 되면, 임시 DNI (temporaria)이나 영구 DNI (Permanente)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취업은 물론 전화·통신, 은행업무 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임시 DNI를 받게 되면, 국내인과 교육, 일자리 등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임시 DNI의 경우, 한국인은 1년 마다 갱신을 해야하고, 4년차가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영구 DNI로 바꿀 수 있다. 교육 유학의 경우 미리 DNI를 신청하지 않아도, 여권과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학교입학등록을 할 수 있다 (여행비자로 90일 체류 허가). 재학증명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학생비자(임시)를 신청할 수 있다.

#### ○ 통신(핸드폰)

- 주요 통신사 : Movistar, Claro, Personal
- 개통 절차 : 통신사 사무실에서 선불 유심칩 또는 플랜을 선택해 일반 유심으로 개통 가능 (신분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지참).

- 초고속 통신망 & 케이블 TV: Fibertel, Telecentro 등
- ※ 선불유심칩의 경우, 잔액이 떨어질 때마다 길 거리의 골목상점(Kiosco)에 들려 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일반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 할인 혜택도 적지 않으므로 참고 필요.

## ■ 일자리 정보

- 연방정부 일자리 교육 시설 지도
  - <http://www.trabajo.gob.ar/mapaoe/>
- 시정부 통합 일자리센터
  - <https://www.buenosaires.gob.ar/tramites/centros-de-integracion-laboral>
- 아르헨티나 한인 상인 연합회
  - <http://www.iacea.com.ar/gnu/bbs/index.html>
- 아르헨티나 한인회
  - <http://nammihanuri.com/>
- 일자리 통합 검색 포털
  - <https://www.careerjet.com/>

## ■ 취업가능 및 유망 분야

- 컴퓨터, 정보통신, 에너지 등 공학 분야 일체의 경우 현지 인력부족으로 외국 인력(특히 남미)이 많이 유입되는 분야이며, 연봉수준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직군중 하나임.
- 한국어 교육도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외식문화사업 등의 창업프로젝트 등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스페인어 수준임. 현지어에 능하고 위와 같은 전문지식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아르헨티나나 남미를 무대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음.

- ※ 아르헨티나는 유럽식 복지국가 형태를 표방하는 나라로 세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따라서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주가 공식고용(en blanco)보다는 비공식고용(en negro)을 선호하거나, 초기 일정 수습기간 동안에는 국세청/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 ※ 비공식고용의 경우, 피고용인도 20%에 달하는 세금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이 일반적 관례처럼 자리 잡은 측면이 있음.

### 3 어학연수 및 유학정보

#### ▣ 기본사항

-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해서 어학원을 직접 방문 후, 레벨테스트를 거쳐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 ▣ 어학연수 시설 및 기본사항

- 위치
  -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주요 어학원이 집중적으로 위치하나, 코르도바, 로사리오 등의 주요 도시에 지점을 보유한 어학원들이 있음.
  - 수도의 경우 대통령 궁이나 미크로센트로 지역에 집중.
- 학비
  - 현지 화폐(아르헨티나 페소)가 불안정한 관계로 미화로 수업료를 명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최초 등록비(50불 내외) 를 따로 요구하기도 함.
- 수업시간
  - 인텐시브 코스의 경우 주로 오전 10시부터 일 3~4시간씩 수업진행.
  - 수업시간 외에도 어학원에서 주최하는 현지 문화체험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

- ※ 미국에서 학생들이 단기 언어연수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와 유럽 대학생들이 배낭여행, 자원봉사 겸 입국해 초기에 어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음. 학원 내의 다양한 특별활동에 참가해 친구를 사귀며 언어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함.
- ※ 대부분의 사설 어학원의 경우 주 단위로 등록이 가능하며, 레벨테스트 후에 수업의 수준이 맞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수강 클래스 변경 요청 가능.

#### ■ 주요 어학원 리스트(2019년 1월 기준)

##### ○ CUI (Centro Universitario de Idiomas)

- 스페인어 외에도 다양한 15개국어 강의가 열리는 수도 내 최대 규모의 랭귀지스쿨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공식 인증 어학연수기관.
- 주 15시간 3~7명 그룹레슨 + 5시간 개인 레슨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 모듈 채택 가능 (미화 300\$내외).
- 수도 내에 팔레르모(Palermo), 까바시또(Caballito) 등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여러 지구에 지점 운영.
- <http://www.cui.edu.ar>, <http://cuispansh.com/>

##### ○ UBA 어학당 (Laboratorio de idiomas)

- 부에노스 아이레스 철문대(Facultad de Filosofia y Letras)에서 운영하는 어학당으로 사설 어학원보다 비교적 수업료가 저렴함.
- 3월부터 7월, 8월부터 12월, 학기제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고, 대체적으로 2개월 단위로 등록 가능 (주당 4시간 또는 8시간 과정).
- 1월말 2월 초에 방학기간 주 15시간 인텐시브 과정이 있고, 수업료는 월 미화 400\$내외. 학생 수는 최대 12명.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idiomas.filo.uba.ar/spanish-foreigners>)



○ **Academia Buenos Aires**

- 대통령궁 근처에 위치한 어학원으로, 연중 언제든지 레벨테스트를 하고 주 단위로 등록 가능.
- Dele 시험준비 등 어학원으로서 탄탄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야회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수업료: 20시간 기준 미화 215\$. (등록비: 50\$ 별도)
- <https://www.academiabuenosaires.com/es/>

○ **Vamos Spanish Academy**

- 팔레르모(Palermo)지역에 위치한 어학원. 수업료는 주 20시간기준 200불 내외.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제공함.
- <https://vamosspanish.com/es/>

○ **Instituto de Español Rayuela**

- 산텔모(San Telmo) 지역에 위치한 어학원. 주 10시간, 20시간 기준으로 미화 90\$, 180\$ 내외.
- 회화클럽에서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해 연습할 기회제공
- <https://www.spanish-argentina.com.ar/>

○ **기타 어학원**

- **Expanish** - <https://expanish.com/>  
(바르셀로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점 운영)
- **Bien Argentino** - <http://www.bien-argentino.com.ar/>

▣ **유학 - 4년제 학사 과정 이상**

○ **기본사항**

-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 내의 명실상부한 문화·교육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음.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도 학비가 전액 무료이

- 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학생들은 물론 브라질,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우수한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음.
- 때문에 국내 대학과는 달리, 아르헨티나 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학비, 학제, 이념과 사회적 인식 등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음
  - 입학이 쉬우나, 졸업이 어려운 것이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의 특징임.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이하 UBA) 진학 예비과정 및 학기당 의무 과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상위학년 수업을 듣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4년 안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경우 노후화된 인프라, 느슨한 학제, 관료제 문제,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화 수준 때문에 사립대학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이전에 국립대학, 특히 UBA가 독점하다시피 하던 학계의 다양화, 탈권력화 되는 기회가 됨. 특히 지방 국립대, 신생대학교와 사립대가 성장하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도 초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BA는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학계와 사회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임.

## ■ 아르헨티나의 주요대학

### ▶ 국립

#### ①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 (Universidad de Buenos Aires)

-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1821년에 설립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은 내국인, 외국인이 모두 동등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르헨티나 최고의 종합고등교육 기관임.
- 2019년 QS 라틴아메리카 대학순위에서는 8위를, 전 세계 대학순위에 73위를 차지. 노벨상 수상자를 4명 이상 배출한 명문대학.
- 13개의 단과대학, 10개의 박물관, 6개의 병원, 3군데의 부설 중고등학교 등이 도시에 전체에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학제를 가지고 운영됨.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총 78학과에서 28,000여명의

교수진(강사, 튜터 포함)과, 30만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음.

- 치대, 의대, 약대 등은 현재까지도 라틴아메리카 내 최고 수준.
- 입학시험이 없는 대신, **CBC(Ciclo Básico Común)**라고 불리는 1년 동안 **대학진학 예비과정**이 존재함. 교양과정 및 학부기초과정이 포함됨.
- 공식페이지 <http://www.uba.ar/internacionales>
- CBC 입학지원은 10월 ~ 11월 사이. 3월 첫째 주에도 마지막 지원기회가 있음. 자세한 지원자격 및 절차는 별도로 확인 필요.
- CBC 지원페이지: <https://www.cbc.uba.ar/inscripcion.html>

## ② 라플라타 대학교 (Universidad de La Plata)

- 수도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라플라타시에 위치해있음. 명실공히 아르헨티나의 제 2의 대학으로 총 15만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
- 17개의 학부가 존재하며 총 115개의 학과가 운영 중임.
-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사이에 입학 지원가능하며, 단과대학별로 자체 적 진학 예비과정 운영.
- <https://unlp.edu.ar/ingreso>

## ③ 산마르틴 대학교 (Universidad Nacional de San Martín: UNSAM)

- 1992년 설립 이후,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내실이 탄탄한 국립대학교로 과학기술, 인문,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2018년 기준 라틴아메리카 대학교 순위 19위.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40분 가량 떨어진 산마르틴이라는 지역에 제 1 캠퍼스(Campus Miguelete)가 위치하며, 인문계열과 석박프로그램 의 경우 수도 내에서도 진행됨.
- 젊고 열정적인 교수진들과 함께, 국내 타 국공립대학에 비해 관료제적 문제가 적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대학 으로 평가되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음.
- <http://www.unsam.edu.ar/>

## ▶사립

### ④ 아우스트랄 대학교 (Universidad Austral)

- 카톨릭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립대학.
-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시내에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필라르(Pilar) 캠퍼스에서 수업이 이루어짐. 학비가 다소 비싸고 캠퍼스의 위치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 수도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제 3의 도시 로사리오에서는 농산업 관련 전공이 특화되어있음.
- 스페인어 강의는 물론 영어강의도 이루어짐.
- 공식홈페이지: <http://www.austral.edu.ar/en/#2>

### ⑤ 카톨릭 대학교 (UCA: Universidad Católica Argentina Santa María de Buenos Aires)

- 아우스트랄 대학교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 사립대학교로 꼽히며, 수도 중심가 가장 현대적인 지역 푸에르토 마데로지역에 위치해 있음.
- 한국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기회 제공 (한국에서 학점인정 부분은 개별 확인 필요)
- <http://uca.edu.ar/es/uca-internacional>

### ⑥ 디텔라대학교 (Universidad Torcuato Di Tella)

- 사회과학, 경영학, 예술학, 건축학 특화 학교로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 Universidad de San Andres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명망있는 사립학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국제교류에 굉장히 활발한 대학교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대학과의 협력과정이 존재함. 교류를 맺고 있는 해외 대학교에서 교환 및 방문학생으로 수학가능.
- 석사 과정에 경우 연간 3학기 9학점제로 운영됨 (총 이수 54학점). 대부분의 교재들은 영문 원서를 사용하지만 수업 및 시험들은 스페인어로 치뤄짐.

⑦ **UADE (Universidad Argentina De la Empresa)**

- 경영, 비즈니스에 집중된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로 계속 성장 중인 사립대학.
- <https://www.uade.edu.ar/estudiantes-internacionales>

⑧ **산안드레스 대학교 (Universidad de San Andres)**

- 수도에서 1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Pilar 지역에 캠퍼스가 위치한 사립대학.
- 기업가, 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세워진 대학으로 MBA코스가 유명함.
- Di Tella 와 함께 사립대학이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는 편.
- <https://www.udesa.edu.ar/>

⑨ **기타 우수 공대**

- **UTN (국립기술대학교)** <https://www.utn.edu.ar/es/>
- **ITBA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술학교)** <https://www.itba.edu.ar/>

※ **국립/공립대학 VS 사립대학**

- 아르헨티나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육비와 규모뿐 아니라, 이념과 운영방식, 학업기간, 특화된 전공, 성과와 목표, 학생들의 자부심, 사회적인지도까지 아주 큰 차이를 가짐.
- 특히 역사와 전통이 깊은 법대, 공대, 이과대, 인문대, 사회과학대 등에서는 그 강세가 매우 두드러짐. 그 중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은 현재에도 30만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있는 국내 최대 고등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도 그 졸업자가 주요 정치, 경제계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한편, ICT, 경영 등 특수, 세부 전공의 경우, 2000년대 전후로 급격히

늘어난 지방국립대와 사립대가 전략적 역량강화를 통해 그 영향력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분야임.

#### ■ 지원 필요 서류 및 입학 절차

- 학교, 학과별로 지원절차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Pre-inscripcion (사전지원)을 통해 인터넷 지원 후에 원본 서류를 학교에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학사 입학지원 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표, 외국어 성적표 등(학교 별, 과정별로 차이가 있음. 개별 확인 요)
- 석사이상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 CV/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2장 등이 추가로 요구됨

※ *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학교 증명서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아르헨티나에서 공인된 번역가로부터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함. 한국에서 번역 및 공증된 문서는 인정이 안 됨.*

※ 공인번역사는 공인번역학교 사이트 (<http://www.traductores.org.ar/>) 또는 한인상인 연합회 (<http://www.iacea.com.ar/gnu/bbs/index.html>)에서 확인 가능

## 4 아르헨티나 교육의 특징

#### ■ 국립/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양극화

- UBA 대학은 규모, 교수진 및 학생 수에서 국내 사립대학들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음. 하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새로 설립된 대학과 사립대학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이는 신생 대학들이 UBA의 느리고 시스템, 노후화된 시설, 시대변화에 느린 대응력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 위주의 학제, 학교 운영 방식, 커리큘럼을 제시하기 때문.
- 새로운 학문 분야인, 경영, ITC, 국제 정치 등 실용분야에서 신규 국공립 대학(전문단과대학)과 사립대학 대학이 강세를 많이 나타내는 추세.

- 좋은 사립대학의 경우, UBA의 교수진을 그대로 초빙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처럼, 주요 사립대학의 정교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한 대학에 소속되어 배타적으로 강의를 하기 보다는 여러 대학에 출강한다는 것이 특징.

#### ■ 교수 및 학생들과의 관계

- 한국에 비해, 훨씬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임.
- 강의식 보다는 참여식,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이 대부분이므로,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UBA나 국공립대학의 경우, 개인 연구실이 단과대학 내에 존재하기 보다는 대학 내 연구소나 사설 연구소에 있는 경우도 많음.
- 한국과 달리,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이 일정하지 않아 매우 다양한 연령층 학생들을 고등교육과정에서 접하게 됨. 특히, 일을 하면서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적 필요나 흥미에 따라 다시 학문에 뛰어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음.
- 아르헨티나 학생들의 경우, 토론식 수업과 구두시험에 익숙해서 자기주장이 강한 편.

#### ■ 학교 시스템 이해

-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한국 또는 미국의 "교육산업"식 대학을 상상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실망을 하거나 낭패를 볼 수 있음.
- 한편, 국공립의 경우 학교 시스템 서버나 디지털 환경 개발에 투자가 미흡해 여전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인 방식으로 수강신청, 성적확인 등을 하는 등 다소 뒤쳐진 면이 있음. (한국의 2000년대 초, 중반 정도 수준)
- 일반적으로 4~6년 동안의 커리큘럼이며, 건축대학, 치의대, 공대 등 일부대학에서는 학업기간이 6년으로 진행됨.

#### ■ 시험 및 평가 방식

- 적당히 출석을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부딪칠 가능성이 큼. 학생의 적극성과 절실함이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원만한 졸업을 좌우하는 열쇠임.
- 한국의 암기식 학습방법, 시험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구두시험, 보고서 대체 등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
- 수강완료 이후에 따로 방학기간 중에 재시험일이 있고, 합격점에 미치지 않는 경우,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함
- 시험 준비에 유용한 사이트 : <https://www.altillo.com/examenes/>

#### ■ 유학 준비 중 참고할 사항

- 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증빙서류는 아르헨티나에서 공인된 번역가로부터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함.
- 사립학교의 경우, 등록금과 학비를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음.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환율 및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고려할 만한 사항.

## 5 생활여건

#### ■ 병원

- 보건의 경우도 '모든 사람에게 국적, 성별 등 차별 없이'라는 내용이 적용되는 범위임. 국공립병원의 경우 응급실(Guardía)에서 일반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처방도 무료임. 하지만 새벽에 미리 가서 대기해야 하며, 병원에 따라 내부 시설이 낙후되어있는 경우도 있음.
-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을 드는 경우, (특히, Assist Card 유학생보험의 경우 아르헨티나 보험회사라 국내 병원들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음) 사설 병원 및 클리닉을 이용하고, 청구혜택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공립병원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이용가능함.

- 사립 병원: Hospital Alemán, Medical Swiss, Hospital Italiano, Sanitario Guemes 등

## ■ 교통

- 인근 공항: Aero Parque라고 불리는 국내 공항과 Ezeiza(EZE)라고 불리는 부에노스에서 1시간 20분정도 떨어진 국제공항이 존재함. 시내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으로는 Manuel Tienda Leon 이라고 불리는 공항 리무진이 있음. 부에노스 아이레스 레띠로 역까지 운영됨.
- 전국광역교통.
  - 버스: Retiro 역 (국내 곳곳을 잇는 시외 교통망의 핵심 역)
  - 기차: 전국 총 126개의 역사가 있으나, 연결망은 버스에 비해 협소하며, 비용이 매우 저렴하나 이동시간이 김.
  - 비행기: 국내 항공 Aerolíneas Argentinas을 포함, 최근에 국내저가항공사 Flybondi, Jetsmart 등이 개항시작.
- 시내교통: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Subte), 지상철도(Tren), 메트로부스라고 불리는 도시 일부구간의 중앙차선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존재.
- 지하철(Subte)의 경우 1920년 라틴아메리카에 가장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시내 중심가에 다소 집중적으로 6개의 노선이 몰려 있음. 오래된 만큼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파가 몰림.

## ■ 취미 및 문화 생활

- 항구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300만명(수도권 8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남미에서는 상파울로 다음으로 큰 규모의 도시임.

- 통칭 이주민의 나라라고 여겨지는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영향으로 탱고를 포함한 그들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며 발전하였음. 현재까지도 남미의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음.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다는 점임. 센트로 꿀뚜랄(Centro Cultural-문화센터)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문화예술작업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음.
- 스포츠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축구, 사이클링, 요가, 암벽등반, 골프, 요트와 조정 등의 수중레포츠가 잘 발달해있음.

## 6

## 여행정보

### ▣ 여행정보

#### ○ 이과수 폭포 (Catarata de Iguazú)

나이아가라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 이과수라는 말은 근방 원주민 족의 언어 과라니어로 큰(guasu) 물(y)이라는 뜻임. 이과수 강이 지류이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에 위치해 있음. 2,700m에 걸쳐 총 275개의 작은 폭포가 존재하며 하늘에서 보면 반원형 모양을 하고 있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 양쪽에 입구가 따로 있으며, 아르헨티나 측의 "악마의 목구멍(Garganta del Diablo)"이라 불리우는 폭포가 80m로 가장 높고 가장 유명함.

#### ○ 파타고니아 (Patagonia)

지리적으로 남아메리카 남단의 콘모양으로 생긴 지역을 지칭함.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있으며, 남극 대륙과 일부 섬을 제외하고, 지구상 가장

남쪽에 있는 대륙의 지역으로 기후도 꽤 추운 편. 서부 파타고니아는 안데스 산맥의 끝자락이 지나가며, 이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을 나눔. 수많은 빙하와 빙하호가 위치해 있어 이름난 비경 중의 하나임. 서해안 쪽에는 무수히 많은 섬이 있으며 강수량이 많음. 반면 동쪽은 평지로, 비구름이 안데스 산맥에 막히는 특성상 사막과 초원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 살타 & 후후이 (Salta & Jujuy)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칠레의 안데스 산맥, 북쪽으로는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비교적 작은 주에 속하지만, 해발 3,500~5,000m 고산지역의 이국적인 풍광이 주는 감탄과 경외감, 안데스 고산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임. 고산지대의 건조한 사막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위대한 자연 풍광을 만날 수 있음. 붉은 산과 꾸불꾸불한 길 사이에 투명한 하늘 높이 치솟은 이국적인 선인장, 건조한 계곡과 울긋불긋한 단층이 인상적인 여행지임.

- 그 외에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인근의 삼각지 숲 띠그레(Tigre), 와이너리 투어로 유명한 멘도사(Mendoza), 남미의 스위스라 불리는 바릴로체(Barilloche), 희기한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푸에르토마데린(Puerto Madryn) 등 풍부한 여행지 존재.